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 차이*

백순근¹⁾ 이솔비²⁾ 장지현³⁾ 양현경⁴⁾

요약

이 연구는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사교육 시간 및 비용,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의 8차년도 및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맞벌이 610가정과 2학년 맞벌이 575가정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 2학년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라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둘째, 1, 2학년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으나, 부모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운영의 다각적인 개선 및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사교육, 일-양육 양립, 한국아동패널(PSKC)

I. 서론

우리나라의 방과후 교육은 1996년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시작되었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포함되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이 발표되고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를 초등돌봄교실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장명림·김성희·김옥자

* 이 논문은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18.11.23.)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3)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4)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외, 2015). 2005년에는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학습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김수동, 2006). 방과후학교의 4가지 정책목표로는 사교육비 경감, 학교 교육기능 보완,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가 있었다(교육부, 2006; 2007; 변종임·조순옥·최종철 외, 2009).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초등돌봄교실 관련 주요 정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초등돌봄교실 관련 주요 정책

년도	주요 정책 사항
2004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 시작 및 시범 운영 - 맞벌이, 한부모, 빈곤 가정 증가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및 지도 - 사교육 경감의 대책으로 제시
2010	<input type="checkbox"/>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변경 - 전국 학교의 6,200실로 확대 운영
2011	<input type="checkbox"/>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범 운영 - 종일돌봄에 아침돌봄을 추가하여 연중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 6시반-9시 아침돌봄, 방과후-17시 오후돌봄, 17시-22시 저녁돌봄 운영
2012	<input type="checkbox"/>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 - 초등돌봄교실 7,400개 교실로 확대 - 2016년까지 1-6학년으로 확대
2018	<input type="checkbox"/>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 학교-지역사회 연계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 돌봄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 (9개 지자체 선정; 3년간 80억 지원)

2004년 방과후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초등돌봄서비스는 2010년에 '초등돌봄교실'로 변경되어 확대 운영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초등돌봄교실의 주요 정책 목표는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 첫째,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후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 및 학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복지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강지원·이세미, 2015).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보육 및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은 정규 수업 이후에 이루

어지는 교육 및 돌봄 활동이며, 학부모를 대신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간식 제공 및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양윤이·이태연, 2016).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와 달리 초등돌봄교실의 주대상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일반적으로 저학년인 1, 2학년을 중심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시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종일돌봄에 아침돌봄을 추가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연중 아침, 오후, 저녁 등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교육부, 20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년에는 365일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학교의 보육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지자체-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2015년에는 초등돌봄교실 중점 추진과제로 학년별 특성 및 학교여건에 따른 운영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 운영의 내실화, 돌봄교실 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우수하고 다양한 인력 활용 확대, 지역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예컨대, 2004년에 337개교(5.5%), 445개 교실, 8천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이 2014년에 5,938개교(99.0%), 10,966개 교실, 22만 1천명으로 확대되어 10여 년 동안 운영 학교 수는 15배, 운영 교실 수는 25배, 참여 학생 수는 27배가량 증가하였으며(조진일·김홍원·최형주 외, 2015), 2016년에는 5,998개교, 11,920개 교실, 약 24만 명으로 확대되었다(교육부, 2017).

2017년부터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비 증액 및 시설 증축, 오후돌봄 안전관리 강화, 저녁돌봄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돌봄 연계체제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특히,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저녁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내실화하여 학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초등돌봄교실을 3~6학년 대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17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교육부, 2017). 2018년에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역으로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교육부, 2018).

초등돌봄교실의 사교육 경감에 대한 효과 연구는 추진 시작부터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참여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오범호와 양

수경, 박원표(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참여가 사교육비용 경감에 기여하고 부모의 안정적 직장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교육적 성취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홍원과 임현성, 김유리 외(2010)의 방과후학교 성과 분석 연구에서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부모들의 83.5%는 돌봄교실이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원과 양애경, 이성원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40.6~57.5%가 사교육 비용이 줄었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노성향(2012)은 초등돌봄교실이 취업모 가정의 사교육 비용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면서 취업모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노성향, 2012), 2014년 조사 결과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9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교육부, 2014).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교육여론 조사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최고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임소현·강영혜·김홍주 외, 2015). 반면,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맞벌이 가정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만족도는 외국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김대석·성정민, 2016).

초등돌봄교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마다 여러 형태의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도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부모의 일-가정의 병행을 지원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아동의 복지권을 강조하고 있으며(김재인·이향란, 2004; 조미숙, 2006), 미국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 등 방과후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보호 및 학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김지민, 2010; 서혜전, 2018; 이향란, 2006). 스웨덴의 아동 보육 센터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육 센터의 교육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과 협동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din, Ekholm & Andersson, 1997). 독일에서는 독일 여성의 출산 계획 및 출산율과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아동 보육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nk & Kreyenfeld, 2003). 한편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및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의 효과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방과후 아동 보육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학업 성과와 인지적 영역 발달에 도움을 주며 정서적으로는 교우관계 및 감정 조절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Barnett, 1995; Halpern, 1992; Posner & Vandell, 1994). 이러한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학령기 아동의 보육이 아동의 학업 및 정서적 발달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부모의 일-가정 병행 등 아동 보육 시스템의 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높은 수요와 확대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실의 성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나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 분석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 :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8차년도(2015년 조사, 1학년) 및 9차년도(2016년 조사, 2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의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학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사교육 시간 및 비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사교육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사교육 비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 중인 한국아동패널(PSKC) 자료 중 8차년도(2015년 조사, 1학년)와 9차년도(2016년 조사, 2학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맞벌이 610가정과 2학년 맞벌이 575가정이다. 맞벌이 가정은 직장을 다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업에 전념하거나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휴직 혹은 휴학한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8차년도에 초등 돌봄교실을 참여한 학생은 147명(24.1%)이고 9차년도에 참여한 학생은 76명(13.2%)으로,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보다 2학년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분석 대상

		8차년도(1학년)		9차년도(2학년)	
		N	(%)	N	(%)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참여	147	(24.1)	76	(13.2)
	미참여	463	(75.9)	499	(86.8)
전체		610	(100)	575	(100)

참고로 학년별 소득분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이때 소득분위에서 저소득은 가구 소득 월 평균 400만원 이하, 중간은 월 평균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고소득은 600만원 초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모든 소득집단에서 8차년도(1학년)에 비해 9차년도(2학년)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며, 중간 집단, 고소득 집단, 저소득 집단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소득분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분포

	8차년도(1학년)		9차년도(2학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고소득 (600만원 초과)	33 (24.3%)	103 (75.7%)	20 (13.8%)	125 (86.2%)
중간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67 (23.9%)	213 (76.1%)	25 (9.5%)	237 (90.5%)
저소득 (400만원 이하)	47 (24.2%)	147 (75.8%)	31 (18.6%)	136 (81.4%)
전체	147 (24.1%)	463 (75.9%)	76 (13.2%)	498 (86.8%)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을 참여한 학생의 주당 이용 횟수, 하루 평균 이용 시간, 학부모 만족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주당 이용 횟수의 경우 1학년 학생은 방학 중 보다 학기 중에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학년 학생은 학기 중과 방학 중 이용 횟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의 경우 1학년, 2학년 모두 방학 중에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 만족도의 경우 8차년도, 9차년도 모두 4점 내외로 나타나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초등돌봄교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초등돌봄교실 주당 이용 횟수, 하루 평균 이용 시간, 학부모 만족도 평균

	8차년도(1학년)			9차년도(2학년)		
	전체 (N=147)	학기 중 (N=138)	방학 중 (N=108)	전체 (N=76)	학기 중 (N=76)	방학 중 (N=55)
주당 이용 횟수 (단위: 일)	4.77	4.85	4.71	4.80	4.83	4.82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단위: 시간)	3.55	3.08	4.44	3.43	2.74	4.67
학부모 만족도	3.98	4.01	3.92	4.01	4.04	3.95

2. 분석 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한국아동패널(PSKC)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이다. 초등돌봄 교실에 참여한 경우 1,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사교육 시간 및 비용'과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이다. 사교육 참여는 학원 참여를 통해 사교육 시간 및 비용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서 '일-양육 양립의 이점'과 '일-양육 양립의 갈등'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5 참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모두 .8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8차년도(1학년)와 9차년도(2학년)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이때, 8차년도와 9차년도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평균적으로 일-양육 양립 이점은 낮고, 갈등은 높은 것으로나 나타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문항 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내용	아버지		어머니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일-양육 양립 이점	1.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883	.889	.821	.845
	2.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3.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4.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일-양육 양립 갈등	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848	.859	.877	.879
	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표 6〉 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명	변수 설명	학년	N	최소	최대	평균	(SD)
〈독립변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참여=1, 미참여=0	1학년	610	-	-	.24	(.43)
		2학년	575	-	-	.13	(.34)
〈종속변수〉							
사교육 시간	일주일 중 학원 이용 시간(단위: 시간)	1학년	609	0	20	5.85	(4.60)
		2학년	575	0	20	6.81	(5.30)
사교육 비용	월 평균 학원 비용(단위: 만원)	1학년	610	0	74	17.27	(14.94)
		2학년	575	0	120	21.06	(18.09)
일-양육 양립 이점(부)	아버지가 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얼마 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 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 값	1학년	610	1.00	5.00	3.74	(.69)
		2학년	573	1.00	5.00	3.85	(.69)
일-양육 양립 갈등(부)	아버지가 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얼마 나 갈등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된 6개 문항의 평균 값	1학년	610	1.00	4.00	2.30	(.65)
		2학년	575	1.00	4.50	2.25	(.66)
일-양육 양립 이점(모)	어머니가 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얼마 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 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 값	1학년	604	1.50	5.00	3.50	(.61)
		2학년	571	1.00	5.00	3.51	(.65)
일-양육 양립 갈등(모)	어머니가 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얼마 나 갈등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된 6개 문항의 평균 값	1학년	604	1.00	5.00	2.81	(.71)
		2학년	571	1.00	4.67	2.69	(.73)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라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집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평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효과크기(*d*, 공식 1 참조)도 함께 제시하였다(백순근, 2018).

$$d = \frac{M_{\text{참여}} - M_{\text{미참여}}}{SD_{\text{미참여}}} \dots\dots\dots \text{(공식 1)}$$

한편, 1학년 때의 사교육 관련 변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통제된 이후에도 2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사교육

가.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사교육 시간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사교육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집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1학년의 경우,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사교육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효과크기 = -.41). 2학년의 경우에도,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사교육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효과크기 = -.35). 요컨대, 초등돌봄교실 참여는 사교육 시간 경감에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2학년 보다 1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시간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사례수	M	SD	t	효과크기(d)
1학년	참여	147	4.35	-5.638***	-.41
	미참여	462	6.32		
2학년	참여	76	5.17	-3.302**	-.35
	미참여	499	7.06		

** $p < .01$, *** $p < .001$

한편, 1학년 때의 사교육 시간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2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가 2학년 때의 사교육 시간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8 참조). 이는 1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가 사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2학년 때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시간(공변량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사교육 시간(1학년)	3418.544	1	3418.544	157.588***
초등돌봄교실 참여(2학년)	36.913	1	36.913	1.702
오차	12148.013	560	21.693	
수정합계	15774.308	562		

*** $p < .001$

나.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사교육 비용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사교육 비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집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1학년의 경우,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사교육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효과크기 = -.37). 2학년의 경우,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사교육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효과크기 = -.34). 요컨대, 초등돌봄교실 참여는 사교육 비용 경감에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2학년 보다 1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비용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사례수	M	SD	t	효과크기(d)	
1학년	참여	147	12.97	12.14	-4.592***	-.37
	미참여	463	18.63	15.49		
2학년	참여	76	15.70	14.57	-2.792**	-.34
	미참여	499	21.88	18.44		

** $p < .01$, *** $p < .001$

한편, 1학년 때의 사교육 비용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2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가 2학년 때의 사교육 비용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0 참조). 이는 1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가 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2학년 때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비용(공변량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사교육 비용(1학년)	33561.866	1	33561.866	127.337***
초등돌봄교실 참여(2학년)	414.417	1	414.417	1.572
오차	147598.114	560	263.568	
수정합계	183321.835	562		

** $p < .01$, *** $p < .001$

2.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일-양육 양립

가.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집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1 참조). 1학년과 2학년 모두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참여는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강화 및 갈등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사례수	M	SD	t	
일-양육 양립 이점(부)	1학년	참여	147	3.73	0.65	-.172
		미참여	463	3.74	0.70	
	2학년	참여	74	3.82	0.64	-.285
		미참여	499	3.85	0.69	
일-양육 양립 갈등(부)	1학년	참여	147	2.22	.67	-1.834
		미참여	463	2.33	.65	
	2학년	참여	76	2.27	0.74	.350
		미참여	499	2.25	0.65	

나.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집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2 참조). 1학년과 2학년 모두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참여는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강화 및 갈등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사례수	<i>M</i>	<i>SD</i>	<i>t</i>	
일-양육 양립 이점(모)	1학년	참여	146	3.51	0.54	.116
		미참여	458	3.50	0.63	
	2학년	참여	76	3.44	0.78	-.796
		미참여	495	3.52	0.63	
일-양육 양립 갈등(모)	1학년	참여	146	2.85	.67	.901
		미참여	458	2.79	.72	
	2학년	참여	76	2.82	0.78	1.640
		미참여	495	2.67	0.72	

IV. 논의 및 결론

초등돌봄교실의 주요 정책 목표는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후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를 지원하고 아동들의 사교육 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사교육 시간 및 비용을 경감하고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강화 및 갈등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학년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 2학년 모두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

이 관련 정책의 도입 목표 중 하나인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변종임·조순옥·최종철 외, 200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 이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오범호와 양수경, 박원표(2009)의 연구에서 초등돌봄교실의 참여 경험이 사교육비 지출 경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사교육에 참여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구슬이(2014)는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따른 사적 돌봄 비용 감소효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추산(약 3,594억원)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돌봄교실이 사교육비 지출 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며, 사교육 시간 경감에 대한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의 사교육에 시간 경감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다.

한편, 1학년 때의 사교육 시간 및 비용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2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2학년 때의 사교육 시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1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2학년 때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1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차후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교육 참여 및 비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 2학년 모두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이 관련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일-양육 양립 지원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교육부, 2016;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 송혜림·조영희·정영금 외, 2010; 조진일·김홍원·최형주 외, 2015). 이는 초등돌봄교실의 참여가 부모의 안정적 직장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김홍원·임현성·김유리 외, 2010; 오범호·양수경·박원표, 2009). 그러나 오범호와 양수경, 박원표(2009)의 연구의 경우 단일 문항 즉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에 맡기는 동안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차이를 제시한 것이며, 김홍원과 임현성, 김유리 외(2010)의 연구 또한 단일 문항 즉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제시한 것이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방과후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직장 생활 참여 및 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일지라도, 일과 가정의 건강한 양립에는 그 효과가 여전히 미흡함을 시사한다. 일-양육 양립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이 연구 결과의 차이는 이 연구에서 일-양육 양립에 대한 전반적인

문항을 분석에 사용한 반면, 선행연구는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관련된 일-양육 양립에 대한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의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임을 감안할 때 초등돌봄교실에 따른 일-양육 양립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이와 관련한 부모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더욱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부모의 시간 관리 등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나(신호정, 2016), 이러한 사교육 의존을 초등돌봄교실이 완화해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1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2학년 때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등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자녀 돌봄에 대해 부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와 모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맞춤형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학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전에는 보호 위주의 단순한 돌봄을 주로 요구하나, 진학 후에는 숙제 지도, 보충 학습 등의 학습지도까지 요구하므로(송혜림·조영희·정영금 외, 2010; 조영희·송혜림, 2009),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 저학년 대상 창의·인성 프로그램

과의 연계(교육부, 2017)와 함께 숙제 지도나 보충 학습 등 학습지도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초등돌봄교실과 지역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과의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교육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생 돌봄 연령 및 유형별 맞춤 서비스의 확대가 지속되어 맞벌이 가정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초등돌봄교실 참여자의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참여자의 사례수가 부족한 것은 이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수의 한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성별, 지역, 부모소득 등을 통제하지 못한 채 차이 검증을 실시했다는 점은 정책 효과 연구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초등돌봄교실 참여자의 사례수를 더욱 확대하여 중다회귀분석, 경향점수를 활용한 결합표집(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등을 활용하여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지역, 사교육시간 등의 공변인에 대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한 후 참여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원·이세미(2015).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5, 60-70.
- 교육부(2006). 06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2007). 2007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2012).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세부 추진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 교육부(2014). 201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 교육부(2016). 행복교육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정책. 초등돌봄교실. (2016. 6. 23.).
- 교육부(2017).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발표. (2017. 1. 11.).
- 교육부(2018).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발표. (2018. 6. 27.)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5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 구슬이(2014).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김대석·성정민(2016).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개선 방안: 교육복지 선진국의 문화·예술·체육 돌봄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9), 375-384.
- 김수동(2006).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사례. 경기교육, 170, 43-53. 경기도교육청.
- 김재인·이향란(2004). 외국의 방과후 보육제도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지민(2010). 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7(1), 1-19.
- 김홍원·양애경·이성원·정영모·임봉조·전수민(2012). 2011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임현성·김유리·양애경·정영모(2010).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노성향(201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인간발달연구, 19(3), 21-40.
- 백순근(2018).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수정판). 파주: 교육과학사.
- 변종임·조순옥·최종철·박현정·김인숙·박효진·노희준(2009). 2009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조사 및 성과 분석 연구. 연구보고RR 2009-13.
- 서울특별시교육청(2011). 2011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2012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 서혜전(2018). 한국과 미국의 방과후 돌봄 체제 비교-출발배경, 운영형태, 참여규모에서. 열

- 린부모교육연구, 10(2), 327-354.
- 송혜림·조영희·정영금·고선강·김유경(20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요구 및 정책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신호정(2016).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시간이 갖는 의미.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3(2), 25-43.
- 양윤이·이태연(2016).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영역별 지향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아동교육, 25(3), 211-228.
- 오범호·양수경·박원표(2009).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정책 효과 분석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향란(2006). 스웨덴과 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3(2), 17-35.
- 임소현·강영혜·김홍주·조옥경·안영은(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5).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김성희·김옥자·채명숙·김태정(2015).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중심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미숙(2006). 방과후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교육문화연구, 12, 33-74.
- 조영희·송혜림(2009). 일-가정 균형을 위한 보육 및 학교 영역에서의 요구도와 정책: 맞벌이 가정으로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65-83.
- 조진일·김홍원·최형주·손종렬·신화주·안성현·정유진(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 Barnett, W. S. (1995).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ograms on cognitive and school outcomes. *The Future of Children*, 5(3), 25-50.
- Halpern, R. (1992). The role of after-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city children: A study of the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Journal of Policy, Practice, and Program*, 71(3), 215-230.
- Hank, K., & Kreyenfeld, M. (2003).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and women's fertility decisions in Wester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584-596.
- Hedin, A., Ekholm, B., & Andersson, B. E. (1997). Climates in Swedish day care centers: Children's behavior in differing center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2), 181-187.
-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2), 440-456.

- 논문접수 4월 5일 / 수정본 접수 5월 23일 / 게재 승인 6월 6일
- 교신저자: 이솔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sorobi84@snu.ac.kr

Abstract

The Differences in Private Tutoring Time and Cost and the Perception of Work-Parenting Compatibilit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Elementary Care Class

Sun-Geun Baek, Solbee Lee, Jihyeon Jang
and Hyun-Gyung Ya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time and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and the gains and strains of work-parenting compatibilit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Elementary Care Class in dual-income families in each grade.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8th year (2015 survey) and 9th year (2016 survey) of the Korean Children Panel (PSKC) were analyzed, which included 610 (1st grade) and 575 (2nd grade) dual-income famil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not only in the time of private tutoring but also in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between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Elementary Care Class and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each grade ($p < .01$).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articipation in Elementary Care Class on the gains and strains of work-parenting both of the fathers and the mothers in each grade. This suggests that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caring service and learning programs of Elementary Care Class.

Key words: elementary care class, dual-income family, private tutoring, work-parenting compatibility,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